

“10兆 판 外人 컴백이 관건... 현금보유하며 IT株 관심을”

아찔한 추락세, 증시 긴급 진단

당분간 변동성 확대 지속 전망
기존 주도주 위주 분할매수 유리
일시적 반등에 낙관적 기대 위험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 속에 50여 일간 요동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전염병 확산세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반등의 시기를 쉽사리 예측하지 못했다. 변동성이 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관된 매도세를 보이는 '코리아 포비아' 현상이 지속할 경우 지수는 당분간 상승세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판단도 일치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1월20일부터 전날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9조5190억 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다만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비교적 탄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위기 때 처럼 40%에 가까운 추락을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수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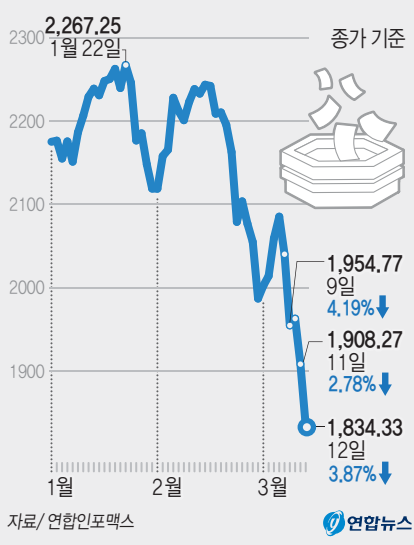
◆“롤러코스터 장세 계속될 것”

실물 경기 위기는 증시에 반영됐다. 소비·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내수 경제가 부진할 것이라 우려감이 지수를 끌어내린 것이다.

증시는 당분간 큰 폭으로 오르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제유가 급락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며 코스피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라며 “당분간 1950~2150선에서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코스피 지수 추이



설명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요국들이 강력한 정책 대응을 내놓으며 혼란이 오래갈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우려가 미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충격으로 변질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시적 악재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던 코로나19 악재가 중국과 한국 등 제한된 지역경제의 충격을 넘어 세계 경제에 직접적 충격을 가했다”며 “가계소득과 고용 등 경제활동에 제동이 걸리며 구조적 침체요인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매크로 환경 변화가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을 필두로 한 주요국 주식시장의 동반 급락과 국제유가 하락 등이다. 김형렬 센터장은 “국내 경제는 대외 교

<리서치센터 증시 전망>

리서치센터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등락 이유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유가 급락	실물경제 악화 우려	경기침체 대한 우려 반영	가계소득과 고용 등 경제활동 제동
코스피 전망	1950~2100 등락	미정	1900~2080 등락	하단 예측 무의미
투자전략	성장주 위주 매수	4차산업 관련주 분할매수	주도주 위주 분할매수	현금 비중 높일 것
유망업종	IT,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플랫폼,반도체, 4차산업 업종	전기차, IT, 4차산업 업종	시장 안정되면 대상 선별

역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 불안과 저물가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막연한 공포감·낙관론 자제해야”

전문가들은 막연한 공포감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지수의 낙폭이 지나친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했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반등할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증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침착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4차산업 관련 업종 가격이 제 평가를 받지 못할 때를 분할매수 기회로 삼아라”고 권했다. 이어 플랫폼과 반도체 등 4차산업 업종을 눈여겨볼 것을 추천했다.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을 때 선부른 매도보다는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이경수 센터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단기적인 관망 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며 “무형자산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4차산업 관련주와 실적 개선 가능성이 뚜

렷한 전기차, IT 등 기존 주도주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주도주 위주의 분할 매수 전략이 높은 변동성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중장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IT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오현석 센터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의 역사적 평균 이하 하락은 기회 요인”이라며 “고부가가치 성장주를 위주로 매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IT,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등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다만 과도한 낙관론은 조심해야 한다. 김형렬 센터장은 “일시적 반등에 낙관적 기대를 담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여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때 가용할 수 있는 투자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12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영향으로 장중 1,870선까지 떨어지며 급락 출발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外人 3.2兆 순유출

1년4개월 만에 최대 규모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27억달러 가까이 유출됐다.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대폭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0년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주식+채권)은 23억5000만달러 순유출로 전환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자금은 지난 10월(-5억9000만달러), 11월(-39억6000만달러), 12월(-2억7000만달러) 연속으로 순유출세를 기록하다 올해 1월(44억3000만달러) 순유입으로 전환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개월 만에 다시 순유출로 돌아섰다.

이는 외국인의 주식자금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26억6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이는 2018년 10월(40억3000만달러)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순유출 규모다. /김희주 기자 hj89@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

Aa2

Moody's 국제신용등급

자본시장의 성장나침반 한국증권금융

투자자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은
1955년 증권시장에 대한 자금공급 및 지원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걸음은 마음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자본시장지원 |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유동성 자금 지원
투자자보호 |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 등에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자본시장인프라 | 증권대차중개 및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서비스
우리사주제도 지원 및 개인·법인·기관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국민의 건전한 재산증식을 돕는 생활금융투자플랫폼 「한국포스증권」이 한국증권금융의 가족으로 함께 합니다.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